



扶安林氏金浦宗報

6호
2020년 12월 18일
www.부안임씨밀직공파.com

◎ 발행일 : 2020년 12월 18일 ◎ 발행인 : 임종철 010-2327-2974 ◎ 편집인 : 임종상 010-5343-3441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29-1

존경하는 김포 종인 여러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니까?



지난 1월 17일 김포 종중 총회에서 종회 회장에 추대 되어 4년간 임기를 시작하게 된 임종철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임종호 전임 회장님께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기에 부족함이 많은 제가 우리 종회를 맡아 잘 이끌어 갈수 있을지 걱정과 조심스러움이 많습니다. 또한 금년 초부터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모든 생활과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사공 휘 계정 조부님께서 김포 월곳에 세거지로 터를 잡으신지 내년이 6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학사공의 후손이 22대까지 이어져 오면서 300여세대가 넘는 많은 성씨 중 하나로 발전되었고 지역 사회 곳곳에 우리 종인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명문 가문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우리 종회의 활동은 김포종인은 물론 부안임씨 중앙종친회, 전국 임씨 중앙회에서 위상이 높아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지역의 다른 성씨 까지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종회는 내실을 투명하고 튼튼하게 하며, 예법과 격식을 보완하여 명문 가문에 맞는 품위를 지켜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며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여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전임 집행부로 부터 전년도까지의 종회 업무와 재산 관계를 인수 받았습니다.

10월 24일에 전임회장, 원로임원을 모시고 식사 대접과 자문위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장으로 취임 후 인사 겸 지도를 받기 위한 자리에서 인수인계 상황과 재산목록, 종회 건물 관계, 개곡리 선영 사초 건과 휘 득성 조부님의 제단 설립 건을 논의하며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자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 종회의 운영은 회장과 총무로 모든 업무가 무리하게 집중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회장 부회장 집행위원회(기획, 소중중 연계), 운영소위원회(회의, 총무업무), 재무소위원회(회계, 자금), 재산소위원회(부동산, 추모공원, 사적관리), 홍보소위원회(종인명부, 회원관리), 제례소위원회(세일제)로 분류하여 간사와 이사를 배치하여 전문화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종회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등록하여, 모든 부동산을 사업자(회장)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차명 등기도 곧 이전 절차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총무 앞으로 개설했던 모든 통장은 사업자(회장)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유존각, 검단 제실, 종중회관, 납골당, 추모공원, 관리인 사택 등의 사적과 재산관리, 분양과 임대관리는 재산소위원회 간사가 책임 관리하며 수시로 종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하였습니다.

종회에서 종인 명부를 만들고, 부안임씨중앙회 명부를 만들어 세일제(시제)때에 미리 초청장을 보내고, 소중중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세일제는 중요한 행사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검단 서하공 세일제는 전국의 부안임씨 각 파에서 참여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입니다. 우리 김포 종회가 주관하기에 각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중앙회 차원에서 홀기와 축문 제례 방식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추운 날씨와 장거리 이동에 따르는 편의와 의전이 필요합니다.

금년 세일제는 해사공(휘 승익)현손이 독축을 하고, 하운공(휘 재호)제사는 현손이 헌관을 하여 그 의미를 상기하였습니다. 제례위원을 임명하여 제관분정표를 제시하였고 제물상석에 천막과 묘역 옆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난로를 준비했으며 편의 제공과 음복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지역의 다른 성씨들도 추모공원과 납골당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허가 및 운영 방법을 문의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7년에 걸쳐 발행한 부안임씨 김포 종보는 횡수를 거듭할수록 많은 소식과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교육장이 되었고 참여하지 못하는 종인들께도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만든 홈페이지(전자족보)에는 개통 1년 만에 전국에서 4만5천여 명이 방문하여 우리 김포종회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곳에 예의와 형식과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회에서 행하는 세일제등의 행사는 정통성과 상징성이 있기에 불편하다고 생략하고 힘들다고 임의로 조정해서도 안 되는 불변의 책임입니다. 명문가문의 유산으로 지켜지고 이어져야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훌륭한 전통문화는 종회를 거쳐 소중 중으로 그리고 각 가정으로 이어지는 예법의 규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방역이 모범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전염병은 예고 없이 나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필연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종사에 참여해 주신 종인 한분 한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만나 뵙는 어르신들, 고문님들, 집행 임원님들, 청년회, 여성회 회원님들 묵묵히 자신의 일을 찾아서 솔선해 주시는 종인님들에게서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으면 좀더 멋지게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아무쪼록 코로나19 가 잠잠해지고 우리 종인 여러분께서 무탈하게 건강하시고 가내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20년 12월 18일

부안임씨 김포종중회장 임 종 철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회 이사회 명단

직 책	이 름	전화번호
회 장	임 종 철	010-2327-2974
부 회 장	임 종 훈	010-3792-2132
부 회 장	임 병 일	010-3792-2132
집행 위원회 간사	임 종 광	010-7600-8082
운영소위원회간사	임 종 상	010-5343-3441
재무소위원회간사	임 한 기	010-6237-2978
재산소위원회간사	임 성 연	010-5244-6723
홍보소위원회간사	임 선 기	010-2235-0278
제례소위원회간사	임 종 상	
이 사	임 용 혁	010-3718-6549
이 사	임 용 복	010-5223-2824
이 사	임 철 규	010-7103-3070
이 사	임 철 기	010-3777-3411

직 책	이 름	전화번호
이 사	임 찬 기	010-9023-5693
이 사	임 하 기	010-5338-0025
이 사	임 현 기	010-9000-6036
이 사	임 정 연	010-2391-1394
이 사	임 응 기	010-3718-8224
이 사	임 명 환	010-5262-9726
이 사	임 종 수	010-2388-8840
이 사	임 도 연	010-9553-9369
이 사	임 철 연	010-8596-5812
이 사	임 승 연	010-6365-6554
이 사	임 성 희	010-8734-1405
이 사	장 영 숙	010-4784-4678
감 사	임 종 철	010-5340-4954

직 책	이 름	전화번호
감 사	임 병 호	010-2739-7750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회 고문단

직 책	이 름	전화번호
명예 회장	임 종 호	010-4734-8002
전임 회장	임 중 기	011-9892-0405
고 문	임 종 학	010-8387-1477
고 문	임 종 철	010-2588-0563
고 문	임 종 근	010-7600-8082
고 문	임 종 문	010-5270-6839
고 문	임 종 선	010-7166-3371
고 문	임 문 기	010-8519-1773
고 문	임 충 실	010-3396-3394

2020년 종회 활동 내용

〈2020년 1월 17일 김포종회 총회〉

- 2019년 감사보고
- 2019년 결산보고
- 2020~2023년 회장 및 감사 선출
회장 임종철(한미약품)선출
감사 : 임종철(전기), 임병호(세무사) 선출
- 2020년 예산안 심의
- 종중회관 긴급 관리권 승인



총 회

〈1월 31일 부안임씨 중앙 종친회 참석 (전북 부안 임종철회장 임종상)〉

- 부안임씨 1세 문헌공 휘 계미~5세 충경공 휘 중간조부님까지 제단설치건
- 기타안건

〈2월 21일 시민회관 4층. 회장 취임 및 임원 상견례, 이사회〉

- 임종철회장 취임식, 임원 위촉장수여, 종회 현안 처리



임종철회장 취임식



2020 제 1차 임원회의

〈6월 6일 종무 인수인계〉

- 전임회장 총무, 신임회장 임원 참여하여 인수인계

〈6월 29일 시민회관 4층 제 2차 이사회〉



〈10월 24일 자문위원단 회의〉

- 인수인계 설정건 재산(부동산 등기확인) 부동산 명의변경건
- 인,허가 변경. 독자성자조부 제단설치, 선영 사초건등 토의



원로 자문회의

〈11월 11일 시민회관 4층 제 3차 이사회〉



〈11월 24일 개곡리 학사공외 선영 세일제〉

〈11월 29일 검단 서하공외 선조 세일제〉

〈집행위업무보고〉

- 종중 재산권에 등기정리, 세무서 사업자등록 변경
- 마송 종중회관 건물 효율 관리방안 토론(매각, 리모델링)
- 이사 보강 및 탈퇴에 관한 회칙 개정
- 임원 단합 워크숍 계획 (코로나19 상황으로 유동적 계획)

〈운영소위 업무보고〉

- 이사회 및 종회 준비와 진행, 이사회 종회 안건 수집 과 분석
- 고문단 자문회의의 준비와 진행, 김포 종보 자료 준비와 발행

〈재무소위 업무보고〉

- 통장개설 변경 (과거 총무 명의로 발행했던 모든 통장을 사업자(회장 명의로 변경)
- 회계 처리지침 규정 (입, 출금전표와 증빙서).
- 자금 집행 시스템 (영수증 과 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약서등 명확한 지출 원인과 증빙으로 회장 최종 결재 후 집행)

〈재산관리소위 업무보고〉

- 선영 및 묘지기 계약 재 검토, 추모공원, 납골당 관리 재검토를 통한 관리 방안 준비
- 개곡리 선영 사초와 11대 휘 득성 조부 제단 설립 확정 (2021년 봄에 집행 예정)
- 추모공원 묘역 진입로, 파고라, 계단 설치공사(2021년 봄에 집행 예정)

〈제례소위 업무보고〉

- 제례 준비 위원회 구성, 세일제 사전 준비 및 확인, 제례복 30벌 구입.
- 검단 세일제에 제단 가림막 설치 및 천막설치
- 세일제 축문, 흘기작성(담당 선임), 홍보 및 확인 통화
- 제방 분정 담당 구성과 세일제분정표 게시

〈홍보소위 업무보고〉

- 전자 족보 업그레이드, 종인 명부 작성
- 세일제 참석자 명찰 부착 및 참석자 명부작성
- 행사장 방역

검단 절의공(서하공)외 묘역 조상님 세일제와 개곡리 학사공외 선영 조상님 세일제

우리 중회의 최대 행사인 개곡리(학사공 외 선영) 세일제와 검단(서하공 외 묘역) 세일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코로나19의 정국과 다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체온 검사, 방역 등의 예방적 조치와 최소한의 참여 인원으로 형식과 예법을 다 했습니다. 서하공 묘소를 찾으신 하운공 휘 재호 조부의 현손과 해사공 휘 승익 조부의 현손이 헌관과 축관을 의미 있게 하며 금년도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방 분정에 담당을 정하여 게시하고, 축문 흘기 등의 부분적 수정과 예법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일제 행사에는 대구 임씨종친회장인 임창용회장이 협찬하신 천

절의공(서하공) 외 선조 세일제 [매년 음력 10월 15일]



절의공(서하공)산신제



26대 손 성희 초헌례



해사공의 현손 종철 대축 축출



서하공 세일제 분정기



재 대구 임씨 종친회 임창용회장이 천막 2기 증정



휘 경세 조부 제단 세일제



휘 숙 조부 제단 세일제



휘 대광 조부 제단 세일제



하운공(휘 재호) 제사 현손 병운 현례
하운공이 서하조부님을 찾으신 경위 설명



세일제 행사 여성회 지원



서하문화비 세일제 기념



서하공묘역 세일제 기념

개곡리 유존각(학사공외 선영) 세일제 [매년 음력 10월 10일]



개곡리 선영 세일제



< 임종호회장님-수고 많았습니다>

르네상스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임종호 회장님!!

- 8년 회장 임기 內 추모공원조성, 전자족보 등 많은 업적 남겨 -



임종호 회장

부안임씨 밀직공파 종회

우리나라 성씨 중 10대 성(姓)에 포함된 임(林)씨. 그만큼 임씨 성을 지닌 사람들의 구성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임씨 성에도 씨족과 혈연중심으로 뭉쳐진 수많은 파(派)로 갈려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의 대덕산에 있는 검룡소다. 이처럼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도 작은 샘에서 발원이 되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듯이 사람의 성씨도 천 갈래가 원래 한 본(本)에서 나오고, 만 개 파가 동일한 원류에 속한다고 한다.

임씨의 역사는 중국 삼황오제(三皇五帝)중 첫 번째 임금인 황제(黃帝)의 후손으로 세계최초의 국가인 은(殷)나라 왕조(3,100여년전)의 가문으로 왕자인 비간공(比干公)을 태시조로 모시고 그의 아들 임견(林堅)을 득성 임씨의 시조로 삼고 있다. 당나라 한림학사 임팔급(林八及)선조님이 신라때 평택으로 동도하시어 한국임씨의 도시조가 되었고, 부안임씨 득관시조이시며 1세조인 문헌공(文憲公) 계자 미자(季美)할아버지를 부안임씨의 본관(本貫)으로 하는 밀직공파(密直公派), 전서공파(典書公派), 판사공파(判事公派)로 나뉘어져 오늘날 놀라운 발전과 성공을 이룬 성씨다.

그 중에 부안임씨 밀직공파가 김포를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종인이 산재되어있고, 약 300여세대가 씨족을 이루고있다. 주로 월곶면 개곡리(개리,조산재), 대곶면 쇠암리,초원지리, 통진읍 가현리,동을산리, 인천 서구 마전동 일원등에 집단으로 분포되어 있다. 5백여년의 모진 풍파에 시달리며 역사를 함께해 오고 있는 보호관리수 은행나무를 비롯 여러곳의 재사장(齋舍場)과 조상의 손길이 이어져 오고 있는 사당과 재실 그리고 분묘, 전통 제의식등은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승되어 오고 있는 정신적인 문화 유산이다.

14세기경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중세의 교회중심문화가 쇠퇴하고 인간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이때를 “부활”과 “탄생”을 뜻하는 르네상스시대라 한다. 아마도 수백년을 이어 온 부안임씨 밀직공파를 오늘에 반추해 펼쳐본다면 지금 이 부안임씨가 르네상스시대를 열고 있다고 볼수 있다.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회는 왕성한 활동과 성과로 지나온 세월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갈 종중의 방향기를 설정하는데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향로의 파도를 타고 순항하는데에는 임종호(林鍾瑚)전임 회장의 역할과 리더십이 새롭게 조명 되고 있다. 많은 업적을 쌓으셨다.

1944년도에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에서 출생한 임종호회장님은 어려서부터 충기가 특출났고 이끄는 동력이 탁월해 매사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성품으로 자수성가하신 분이다. 오래 전에 전국 별정 우체국 중앙회장을 역임해 부안임씨의 자긍심을 전국적으로 드높여 오셨으며, 현재는 김포시 노인회 총동문화장으로 추앙을 받고 계신 가운데 지난 8년동안(2001년~2019년)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를 앞장서 이끌어 오셨다.

‘뿌리 없는 나무 없고 조상없는 후손 없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송조상문(崇祖尙門)과 가전충효(家傳忠孝), 예의염치(禮儀廉恥)의 3대 중훈을 제정해 전 종원이 참여하고 지켜 가는 여건을 마련했다. 조상을 섬기고 일가간에 친목을 찾고 예와 의리 그리고 염치를 아는 종회가 되자는 임회장의 철학이다.

8년 종회 회장 재임 동안 이룩한 업적을 크게 묶어 정리했다.

독골 추모공원, 납골당 조성으로 선대와 후대 장례 문화 완성



산재되어 있는 조상의 묘를 한곳으로 이전해 그 역사를 후손대까지 같이 잘 모시겠다는 일념으로 월곶면 개곡리609-11번지의1필에 2,000㎡(600평) 규모로 159기가 들어 갈수있는 추모공원을 조성(현재 49기 분양)하고, 222기가 들어가는 납골당을 지어 종원들께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어

종가에서의 선호와 반응이 매우 좋다. 특히, 웃대부터 계단형태로 차례로 분양을 함으로써 질서와 존중의 숭조 자세를 후손들이 실천하는 교육의 효과도 얻고 있다.

서하공 묘소단장과 문학비 건립, 임용우열사 유허묘 단장

“국순전, 공방전”으로 학생들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찬탄받고 있고 우리 임씨 가문 전체의 큰 자랑이자 우리민족 문화의 대문호 이신 서하(西河) 임춘(椿)할아버지의 문학비를 2016년도에 건립하게 된 것은 뒤늦게나마 우리 자손들이 마음에 큰 자부심으로 가져도 좋을 경사다. 비록 가문은 고려말에 무신난(武臣亂)에 화를 입어 서하공을 비롯 하여 조상님들이 박해를 당하고 관직에 나가지 못했지만 세속정치에 휩쓸리기보다는 차라리 초야에서 자연과 벗 삼아 살아온 선비 정신은 조상님들의 자랑스런 역사라 생각되어지며 서하공 할아버님의 ‘장검행시비’가 인천 서구 선영하에 설립되었다.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한미약품 임성기(林盛基) 회장의 성금 기탁에 힘입어 건립되었고 종회에 베푸신 회장의 배려가 기억에 남을 종회 헌신으로 각인되게 했다.



또한, 100년전, 일제의 침략과 강점으로 조국이 암울할 때 뼈를 깎는 아픔으로 기미년 3.1독립운동을 김포 고향에서 목청껏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시다가 일제의 잔혹한 고문속에 35세의 젊은 나이에 옥중 순국하신 임용우(林容雨)열사의 추모비 및 유허묘를 2019년도에 새롭게 단장했다. 임용우 열사님께서 오늘날 남기신 충절의 큰 뜻은 우리 부안임씨 밀직공 김포 후손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이 안장된 터에서 후손만대에까지 별처럼 영원히 빛나도록 임종호회장님의 성원과 사랑으로 조성됐다.

부안임씨밀직공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 족보 구축

‘뿌리 없는 백성 없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족보는 그 가문의 혈연의 역사다. 족보는 시조부터 역대 조상의 열과 역사가 담겨있는 나와 우리 집안의 가장 소중하고 보물처럼 간직해야 할 중요한 책이다. 2019년도에 임종호회장님은 이러한 전자 족보의 당위성을 인지하고 부안임씨 파보를 기준으로 인쇄된 책이 아닌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항시 볼수 있는 전자족보를 새로이 단장하여 구축했다. 한번 입력해 놓으면 언제고 추가 개편과 배포가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찾아 볼수 있기에 종전에는 의례 나이드신 어른들만이 봐왔던 것을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갖고 자기의 족보를 시시각각으로 볼수 있게끔 꾸며졌다.

종회 청년회, 여성회 창립으로 젊은층 종회 참여 계기 마련

‘위로는 선조님을 위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일가 간에 화목과 친목을 이루는데 청년들이 앞장선다’ 지난 2012년에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회 산하에 청년회가 그리고 2018년도에는 여성회가 창립됐다. 같은 조상의 자손들이 늙도록 얼굴도 춘수도 모르면 이것은 안되는 일이라고 임종호회장님은 늘 힘주어 말하면서 청년회,여성회가 발족되어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젊고 튼실한 종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 매년 시제때 회원이 참석해 함께 조상의 은덕에 제를 올리고, 단합 및 친목행사를 청년회 주관으로 시행해 많은 젊은 종원들이 관심과 성원을 함께 실천해 오고 있다.

이밖에도 임종호회장님은 8년여 회장 재임기간에 ▲부안임씨 재산인 토지를 종회로 일원화 등기를 완료해 재산권을 확보함은 물론 ▲후손 교육사업▲어려운 종원 장학금 지원사업▲조상묘 단장사업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전개해 그야말로 종회가 르네상스의 시대에 버금가는 황금기를 만들어 놓고 후임 임종철(林鍾喆) 회장님께 인수인계를 해줌으로써 종원들의 신뢰와 고마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정리: 30孫 임종광

추도사

이 시대의 진정한 선비 임성기(林盛基) 회장님!

유난히 고향과 종사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고 임성기 회장님은 부안임씨 28대 용(容)자태(台)자의 셋째 아들로 1940년 대곶면 가현리 에서 태어나 대곶 초등학교 통진중고등학교를 졸업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를 졸업 후에 인격과 책임을 걸고 본인 이름의 상호인 임성기 약국을 창업하였고, 창의적인 약국 경영을 바탕으로 1973년 한미약품을 창립 하셨습니다.

임성기 회장님은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 보다는 약사 본연의 길을 가자는 일념으로 회사 초기부터 “원료로 부터 우리 손으로” 만드는데 집중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약기술 선진화, 과감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로 한미약품을 국내 최상에서 세계 최상으로 올려놓기 위하여 매진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미약품은 세계 굴지의 제약 회사들이 주목하는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진입한 것입니다.

그러한 최고의 지위에서 활동하시던 회장님! 남 다른 고향과 일가에 대한 사랑은 한때 경영위기에 빠져 운영이 곤란했던 통진중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장을 맡아 학교를 정상화시켜 동문과 김포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찬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포중중의 선영 정화공사, 서하공 묘역정화공사와 서하문화비 건립에 큰 성금을 해 주셨고, 조상님께 올리는 세일제에도 항상 사은품으로 약품을 증정해 주셔서 참석한 종인들은 물론 종사 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포 중중은 물론 부안임씨 중앙종친회 행사, 전국임씨 총회등 행사 때마다 약품과 찬조를 보내 주시어 행사 주관에 큰 도움이 되었고 모든 임씨에게 감사와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회장님의 선조에 대한 혈육의 정은, 우리 임씨의 태시조 이신 비간공의 유적지(복진성)를 생신 기념으로 온 가족과 함께 방문하시고 향축대가 아닌 거액의 발전기금을 전달해 중국의 임씨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우리 김포 종인들의 믿음 이였고 자랑 이였고 자부심이셨던 회장님의 타계소식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빛을 잃은 것 같던 느낌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종회에서는 부안임씨 추모공원에 회장님의 유택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 이였으나, 고인의 유언으로 “고향 선산에 자연장으로 산골하고 조그마한 표지석을 세우라” 고 하셨다는 말씀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 훗날 후세 사람들이 호화로운 비석 대신에 세월에 덮힌 이끼 낀 작은 표지석을 보며, 그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 위에 겸손하고 겸소한 선비 정신을 고개 숙여 추모 할 것입니다.

유족이신 부인 송영숙여사, 아들 중윤님 중훈님 딸 주현님께 임씨 종인들은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립니다.

부안임씨 김포총회 임종상 올림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의 추모사〉

'우리나라 製藥의 큰 별'되신 故 임성기 회장님을 추모하며

회장님!

'후회막급'이라는 표현이 이렇듯 절절한 느낌으로 제 가슴을 때릴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영면의 길에 접어든 그 시각, 회장님의 소천을 알리는 전화를 받던 그 순간, 그래서 저의 역장이 무너져 도저히 잠 못 이루던 그날 밤.

구슬픈 비바람과 천둥소리로 가득 채운 캄캄한 창밖을 바라보며 회장님을 일찍 찾아뵙지 못한 저 자신을 얼마나 탓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까지 만해도 안 좋으셨던 건강이 꽤 호전되셨다 하여 “조만간 뵙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바쁜 일정 핑계 삼아 회장님 안부만 전해 들으며 몇 달을 스쳐 보냈습니다.

약사로서도,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직으로서도 저의 영원한 멘토이신 대선배님을 뵈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 저의 어리석은 처신을 이제와 후회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고 임성기 회장님.



회장님께 송구스럽기만 한, 지금의 제 복잡한 마음과 머리를 헤집고 갑자기 지나 간 일들이 새삼 떠오릅니다.

"이 결정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이겨낸 한미약품그룹 임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

2016년 회장님께서 2800명의 한미약품 직원들에게 1100억 원 가량의 주식을 무상 증여 하시면서 이렇듯 어느 매체를 통하여 언급하신 한 줄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눔과 배품이란,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정신, 그리고 생명존중의 제약기업의 이념을 실천에 옮기신 회장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약업계의 거목'이라 여기며 그 기사를 읽어 내려갔었습니다.

그런 회장님께서, 선배님께서, 제게도 힘들 때마다 힘을 주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한약사회장에 올라 처음 선배님을 뵈러 갔을 때 "원 회장은 잘 할거야. 하는 일 열심히 응원하고 밀어주지"라며 다정하고 호기롭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이 단 한 번도 허언에 그치지 않게 하였던 회장님이셨습니다.

제게 가장 당신이 사랑하는 약사후배의 자리를 선뜻 내어 주셨고, 때로는 저의 무례한 응석까지도 받아 주셨던 다감하신 선배님이셨습니다.

당신의 가시는 길에 협회장도, 회사장도 모두 마다하시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러 달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기신 회장님. 그런 당신의 소박함이 다시한번 저희를 숙연케 한 것도 임성기 회장님 다했던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회장님께서 22년 약국정륜을 밑거름으로 글로벌 제약인 으로서의 찬연한 명성을 일구며 한미약품을 넘어 대한민국 제약 산업의 성장 동력을 만드신, '체구는 작지만 꿈은 위대한 거인' 이셨습니다.

당신의 천명은 요즘 세월에 비춰보면 짧다할 수 있는 향년 80에 그쳤지만 당신께 주어진 하늘의 계시를 담은, 또 다른 당신의 천명은 이미 하늘마저 그 소임을 온전히 완수하였음을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먼 미래를 밝힐 햇불처럼, 저 하늘의 큰 별이 되셨으니까요.

회장님의 걸음 하나하나가 이제 대한민국 의약품 제조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가 되었으니까요.

존경하는 임성기 회장님!

회장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모습들을 굽어 살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회장님 가족의 행복한 앞날의 모습은 말할 나위없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미약품의 자랑스러운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눈부신 영광과 이를 뒷받침 할 제약바이오협회의 성장과 발전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제 쉴 틈 없이 달려오신 그 걸음, 그 가쁜 숨 내려놓으시고 좋은 곳에서 편히 영면에 드실 것을 기원합니다.

회장님께서 저와 마주하실 때 먼 늘 편안하고 온화한 '파안대소'의 얼굴로 대 하셨듯이, 저 역시 눈물로 회장님을 보내드리는 나약함일랑 잠시 접어 두고자 합니다.

하여, 마치 선배님께 안부 전화를 드린 예의 그날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선배님, 밤이 깊었습니다. 그만 안녕히 주무십시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타 관향의 유적 탐방

－ 천년의 세거지世居地 상산(진천)임씨 －

진천鎭川(상산常山) 임씨는 임 휘 팔급을 도시조로 하고, 임 휘 희를 중시조로 하는 충청북도 진천군 세거 성씨이다.

임희는 고려 제2대 임금인 혜종의 비 의화왕후(義和王后)의 아버지로서 상산백(常山伯)에 봉해진 것을 연유로 평택 임씨에서 분적, 본관을 상산으로 삼았다고 한다. 상산은 진천의 옛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구명(舊名)을 그대로 이어내리는 후손들이 있어 본관을 진천과 상산으로 함께 일컫는다. 그러나 세계(世系)가 실전(失傳)되어 고려 고종 때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공으로 위사공신(衛社功臣)이 된 임연(林衍)을 1세조로 하여 세계를 잇고 있다.

1세조 임연과 아들 임유무(林惟茂) 부자는 상산임씨를 대표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항몽사(抗蒙史)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인물로 평가된다. 이후의 자손으로 임유무의 아들 임간(林侃), 임희정(林希正), 상산군(常山君)에 봉해진 임지(林智) 등을 배출하여 명문거족으로 이름났다. 조선시대에는 삭녕군수와 홍주목사를 지내고, 충효를 겸전한 인물이라고 칭송된 임수경(林秀卿)이 있다.

고려 초기 중시조 임희가 상산백에 봉해지면서 그 후손들이 진천군에 입향하였으며, 이후 1000여 년간 진천을 본관으로 하는 유력 성씨로 자리하였다.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구산마을을 중심으로 300여 호가 세거하고 있으며, 문백면 평산리 통산마을과 안능마을에도 세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다리 사력 암질의 붉은 돌을 쌓아서 만들어진 다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돌다리이다. 다리는 사력암질의 자석을 쌓아 놓은 다리로서, 28칸의 교각이다. 지방유형문화재 28호로서 길이는 93.6m, 폭 3.6m, 교각 1.2m 정도이며, 교각 사이의 내폭은 80cm 내외이다.석회등을 바르지 않고 그대로 쌓았는데도 견고하며 장마가 저도 유실됨이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다리는 고려 초엽시대의 권신, 임장군이 놓았다는 돌다리로 규모도 크고 축조술도 특이하다. 정자, 산책로, 초평저수지까지 연결된 수변데크 등이 조성되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신비로운 다리모양과 주변풍경이 잘 어우러져 드라마 촬영지로도 등장한다.



상산임씨 세거지



상산(진천)임씨 부자충신 영세추모비



상산임씨 선조 임장군이 놓은 문화재 룡다리

－ 전남 나주 백호 임제 문학관 －

널리 알려진 백호 임제 방계 조부의 시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웠는다.
홍안은 어데 가고 백골만 누웠는가
잔 잡아 권할 길 없으니 이를 슬퍼 하노라.”

평양 감사에 부임하러 가는 길에 송도 황진이 무덤에서 시를 짓고 잔을 올려 그 소문이 임금에 알려져 관직이 박탈 당한 것으로 잘 알려진 분이다.

나주 임씨에서는 이분의 문학비와 백호임제 문학관을 나주에 건립하여 선양하고 있다.

임제(1549 ~ 1587)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자는 자순(子順), 호는 백호(白湖)·풍강(楓江)·소치(嘯癡)·벽산(碧山)·겸재(謙齋),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당시 선비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서로 다투는 것을 개탄하여 벼

슬을 버리고 명산을 유람하였다. 사람들은 임제를 두고 기인이라 하였고 또 법도에 어긋난 사람이라 하여 글은 취하되 사람은 사귀기를 꺼렸다. 고향인 회진리에서 39세로 운명하기 전 아들에게 "천하의 여러 나라가 제왕을 일컫지 않은 나라가 없었는데, 오직 우리나라만은 끝내 제왕을 일컫지 못하였으니, 이같이 못난 나라에 태어나서 죽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느냐! 너희들은 조금도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고 한 뒤 "내가 죽거든 곡을 하지 마라."는 유언을 남겼다.

호협한 성격과 불편부당(不偏不黨)을 고집하는 사람으로, 문장이 호탕하고, 시와 글씨 · 거문고 · 가곡에 두루 뛰어나 풍류시인으로 많은 작품이 남아 있다. 저서로는 『임백호집(林白湖集)』, 『부벽루상영록(浮碧樓觴詠錄)』을 남겼으며, 『수성지(愁城誌)』, 『화사(花史)』,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 등 3편의 있다.

글씨를 잘 썼으며, 특히 초서에 능하였다. 호방한 필치로 막힘이 없이 써내려간 풍모를 통해 구속을 싫어하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던 기개와 곧은 정신이 엿볼 수 있다.



종회에서 운영하는 추모공원 과 납골당

우리 종회에서는 종인들이 어려운 상을 당 하였을 때 편리하고 저렴한
게 사용 할 수 있게 600평 규모에 159기를 수용하는 추모공원을 김포시
에서 허가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추모공원에 비해 저렴한 비
용과 종회에서 관리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유존각(사
당)과 선영이 연결되어 우리 종인들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주차장과 진

입로, 제례 준비와 쉼터로 사용할 파고라(정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추모공원 하단에 납골당은 222기 수용 규모로 제례 장소와 파고
라(정자)를 마련하였으며 종회에서 추모공원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 문의) 재산소위원회간사 임 성 연 010-5244-6723



종회 건물



유존각



검단 제실



개곡리 선영

〈부안임씨가 지향하는 것〉

부안임씨 김포 종회에 새로운 신바람이 분다

- 林鍾喆 신임 회장의 승조, 개선, 화평의 기를 다질 것 -

아시는바처럼, 부안임씨 밀직공파는 휘 득성(得成) 조부님의 아들이신 휘 계정(繼楨) 조부님께서 고려 공민왕때 한림학사로 계시던중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로 조선에 합류치 않고, 개경에서 강남으로 터전을 옮겨 자리한 곳이 문수산 자락 통진 월곶입니다. 이곳이 오늘날까지 김포 밀직공파의 세거지(世居地)가 되고 있으며,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600여년간 대를 이어 우리의 김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씨족사회의 특징은 서로 끈질기게 뭉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포 종회도 역사와 전통을 중시합니다. 그간 임중기(林中基)-임용득(林容得) 종회 회장님의 바톤을 이어 받아 지난 8년간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 임중호(林鍾瑚) 회장님이 이끌던 것을 2020년1월1일부터 임중철(林鍾喆)회장님으로 선장이 바뀌었습니다. 갈길 먼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파도와 풍랑과 격랑의 태풍을 견뎌야하는 어려움도 있겠고 때로는 파사로운 태양아래 순풍이 돛을 유연하게 이끌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난관속에서도 우리 종회는 여타 종씨와 달리 많은 변화와 발전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및 납골당 조성을 비롯, 전자족보 체계 구축, 서하공 역사 바로알기 및 문화비 건립사업, 독립운동가 임용우 열사에 대한 공덕비 건립과 유허묘 단장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통해 종원 단합과 조상에 대한 승조의 정신을 드높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회는 새로운 신바람 모임체로 거듭 나기 위해 종원들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부안임씨 신문화 정착' 패러다임을 정하고 나선 임중철 신임 회장님의 다부진 각오에서 그 진면목을 볼수 있습니다. 임회장님은 취임 일성에서 '승조(崇組), 개선(改善), 화평(和平)의 기를 세우자'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의 뿌리가 있고 혈연의 가치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를 후손에게 대물림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라는 위치를 찾고 잊지 말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얼과 정신을 온고지신 하면서 오늘날 개선하고 후손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자는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원 상호간에 원팀이 되어야하며 그 바탕에는 화평이 최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21일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 회의실에서 첫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간 종회를 이끌시던 어르신들을 고문(자문위원)님으로 위촉하고, 25명으로 연령대와 성별 그리고 지역 소종회별로 안배하여 젊은(40대~70대)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종전의 종회 운영은 회장과 총무이사에 집중된 정보와 업무로 고생이 심했다고 판단하여, 이사회를 분업화 한것이 특색이라 할것입니다.

고문,자문단을 중심으로 회장 산하에 집행위원장이 종무를 총괄하면서 운영위원회 간사가 행정 전반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무 소위원회, 재산관리 소위원회, 제례관리 소위원회, 홍보 소위원회를 각각 두고 모든 이사를 소위원회 소속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소위원회별 활동 영역을 책임감있게 추진토록해 효율적인 종회 운영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예를들자면 금번 독골 학사공(11월24일) 및 검단 서하공 시제(11월29일)를 앞두고 제례관리 소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가칭 '제례준비추진단'이 구성돼 전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토록해 원활한 시제를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견이 있었던 ▲종중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 정리▲세무서 사업자 변경 ▲통진 종중회관 효율 관리 방안(매각, 리모델링 등)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 업그레이드▲추모공원 진입계단 및 그늘막 설치▲이사 보장 및 탈퇴에 대한 회칙 개정 안 ▲득성조상 시제 제단 설치▲ 임원 단합 워크샵 개최등 다양한 종회 현안사항들을 중심으로 민주적인 방식의 의견 재진과 협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출범한 김포 종회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업무 분장과 추진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 종원간 화합하는 원팀의 기반을 다졌으며, 앞으로도 모든 종사는 논의하고 대화하여 후대에까지 연결되는 마중물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임중철회장님이 가고자 하는 종회의 방향은 미래지향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참된 예의와 조상에 대한 숭모 정신으로 종인들 간에 위의와 소통이 잘되도록 하겠으며, 종인들과 같이 훌륭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변화된 시대적 현실을 감안해 종회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면된다. 할수 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못 할일 없을 것입니다.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회 새로운 임원진 모두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많은 일들이 분명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조상을 숭모하고 전통과 윤리를 계승 발전시켜 후대에 바톤을 넘기는 시대적인 과제이며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가치 일것입니다.

-정리 : 30孫 임중광

先祖 時祭 案内

忠節公	林八及	(음)	3월 3일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文憲公	季美	(양)	3월 3째주 토요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연천제)
西河公	椿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敬世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恭惠公	淑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判事公	澤	(양)	3월 3째주 토요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연천제)
密直公	大光	(음)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면 마전리
典書公	蘭秀	(음)	9월 9일	충남 연기군 동면 불파미
學士公	繼楨	(음)	10월10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독골

